



GILLETTE와 숫자 3

숫자 3은 매일 나를 따라다녔다.

매 순간.

그리고 내가 가장 예상하지 못할 때마다, 그것은 나타났다.

며칠 전, 잠에서 깨어나면서 나는 오른쪽 턱 아래에 작은 부기가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대략 알 하나만 한 크기였다.

아내가 그게 뭐냐고 물었다.

나는 말이 되는 유일한 대답을 했다.

한동안 여행을 하지 않았으니 — 기다림 때문인지, 필요 때문인지, 어쩌면 테스트스 테론이 지나치게 만들어진 탓인지 — 세 번째 알이 자라기로 마음먹은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둘지 고른 것은 내가 아니었다.

아내는 미소 지었다.

그녀는 바보짓 그만하고 의사한테 가 보라고 했다.

그런데 어떤 의사?

일반의?

병원 의사?

전문의?

가정의는 아는 게 별로 없었고 실험으로 먹고사는 것 같았다.

병원 의사는 아무것도 증명할 의무 없이 빠른 처치로 먹고살았다.

전문의는 돈을 받았고, 그러니 나를 위한 사람이 아니었다.

응급 의료 서비스가 최악의 선택지들 가운데 최선으로 보였다.

여의사가 문을 열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다.

나는 아직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과일 채소 가게가 바로 옆인 건 압니다만,” 내가 말했다. “여기가 정말 진료소입니까?”

“네. 무엇을 원하세요?”

“바나나 2킬로그램이요. 들여보내 주시면 어떤 품종인지 말씀드리죠.”

그녀는 미소 짓고 대문을 열었다.

그러다 그녀는 내 얼굴과 나의 세 번째 알을 보았다.

장갑이 나타났다.

부위가 검사되었다.

볼거리는 즉시 배제되었다.

그건 4살 때 이미 이겨 낸 적이 있었다.

판정이 내려졌다.

염증이 생긴 림프절.

즉시 검사해야 했다.

“의사들을 위한 보장 소득” 작전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처방전 세 장:

항생제 하나.

스테로이드 하나.

초음파 검사 하나.

그리고 사흘 뒤에 다시 와서 추가 평가를 받겠다는 약속.

그리고 나서 그녀는 종이 한 장을 꺼내 초음파 검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지시 사항을 쓰기 시작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동료분이 초음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면 정말 글로 쓴 지시가 필요하다고 확신하십니까?”

“맞는 말씀이네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나왔다.

“무슨 일을 하세요?”

“저는 환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과일 채소 가게에서 보내지요.”

나는 일어섰다.

“집에 가겠습니다.

마늘로 스스로 치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려 드리죠.

선생님은 실제로 은퇴까지 가게 될 몇 안 되는 운 좋은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그 효과를 알게 되면, 선생님 동료들 중 많은 분이 새 직업이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는 진단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다.

나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곧 나는 다시 여행을 떠날 것이었다.

그리고 부기는 아마 사라질 것이었다.

어쩌면 비행기가 착륙하기도 전에.

Ferdinando